

교환학생 귀국 설문조사서

파견 학교 : 만하임대학교

파견 기간 : 2026-1학기

이 름 : 박*원

학 과 : 도시사회학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을 제외한 이름 중 한 글자를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출국 전 준비사항

1. 해당 자매교로 파견을 나가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의 사항은 딱히 없었습니다. 공지 등에서 안내된 대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2. 해당대학에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음 참가 학생들이 해당학교의 교환학생 파견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만하임대는 시립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학의 파견 수기 및 블로그 후기가 많은 편이므로 정보를 찾아보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 블로그를 많이 찾아보시거나 기파견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해당대학에서의 수학 분야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파견시 자동적으로 정치학과로 배정되는 점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듯 합니다. 정치학과 배정시 사회과학대 수업을 전체 수강 학점 중 50% 이상 신청하라고 안내 받았고, 사회과학대에서 정치학과 교환학생은 정치학, 사회학 수업에서 우선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학 수업을 신청해 전공과 유사한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경영, 경제 등의 타과 수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인원 제한이 있는 수업의 경우 수강 신청 성공 가능

성이 현저히 낮은 듯 했습니다. 경영경제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대형강의도 많았으나, 사회과학대 수업을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관련 과가 아닌 분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4.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고 가는 방법과, 현지에서 시청을 방문해 Residence Permit(거주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일자 예약이 가능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하고 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하고 갔으나, 현지에서 거주 허가를 받는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무비자 90일이 끝나기까지 거주 허가증 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두 방법 모두 독일 기파전자의 블로그 수기 등으로 상세히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5. 항공권은 언제쯤 어떻게 구매하였습니까?

- 스카이스캐너 및 구글 플라이트의 가격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변동 추이를 지켜보다가, 2월 파견 기준 약 3개월 전, 11월말에 편도 티켓을 우선 구매했습니다. 학기 종료 이후 여행 다닐 것을 염두에 두고 편도로 끊은 뒤, 학기 중 4월경에 귀국 편도 티켓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다만 저는 위와 같이 항공권을 구매하며 환율 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루프트한자에서 학생 할인 및 위탁 캐리어 2개 무료 서비스를 받아 왕복권으로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B. 해당대학에서 수학하면서

1. 해당대학과 우리대학의 체제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수업 유형이 Lecture, Seminar, Exercise, Tutorial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또 수강 신청 시 개인간의 수업 교환이 공식적으로 가능했으며, 수강 신청의 경

우 선착순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강의 수업에서는 출석이 필수가 아니었으며, 보통 중간고사 없이 기말 100%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차이로 느껴졌습니다.

2. 다음 부분에 있어서 해당대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기간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업시간 : 1차시를 45분으로 잡고 보통 2차시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intensive seminar의 경우 수업 기간에 따라 하루 2시간 45분(두 달)에서 8시간(3-5일)까지 수업시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자를 사회학과, 후자를 경영 및 경제학과 수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 수업형식 (예: 강의, 세미나, 개인지도, 랩, 기타) : Lecture는 한국식 강의와 동일하며 기말시험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Seminar는 시험 없이 매주 토론, 발표, 레포트 등이 있는 수업입니다. Exercise와 Tutorial은 주로 경영, 경제 수업에서 볼 수 있는 보조 강의격의 수업입니다. 신청이 필수는 아니지만, 본 수업의 보충 설명 및 예시, 기출 문제 안내가 있어 시험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수업의 난이도 : 수업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이 있는 경우 수업에 비해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토론의 경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중 의견을 교환하는 느낌으로 가벼운 토론이 자주 있었습니다.

- 수업참여도 및 출석 관련 : 제가 수강했던 경영 수업의 경우 6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로 온라인 및 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출석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회학, 정치학 세미나(intensive 포함)의 경우 시립대와 유사한 출석 요건이 있었습니다.

- 시험 : 세미나는 전부 기말 term paper 제출이 있었고, 경영 강의는 90분의 지

필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 과제량 : 세미나의 경우 매주 논문 읽기, 감상평 제출 등의 과제가 있었고, 경영 수업의 경우 과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세미나는 발표 혹은 기말보고서 제출 전 주 제 발표 및 피드백 시간 등이 있었으며 과제량은 크게 부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수학점 (본인 총 이수학점) : 24ECTS (변환시 13학점, 어학 1학점 포함)

3.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후배들에게 추천하고픈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General German Language Course A1.1

교환학생 대상의 수업이어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부담이 덜했습니다.

4. 수업내용은 만족스러웠습니까?

-네

5. 해당대학에 학습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 관련 부서 및 교수님, 조교님 등이 메일 등으로 질문을 편하게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따로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6.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까? 수강 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수강하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였습니까?

- 학기별로, 학과별로 수강되는 수업의 유형이나 수가 크게 달라 아쉬웠습니다.

7.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적어주세요.

과목명	강의내용	참고사항
PS Introduction to Comparative	정치와 경제에 관련된 수업으로 매주 가벼운 토론 및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담을 느껴	Seminar

Politics: Money in Politics	학기 중 수강취소 했습니다만 학생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수업이라고 느꼈습니다.	
MAN 401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파트1:Organization. 파트2: HRM과 같이 두 개 파트로 이루어진 강의입니다. 수업 자체는 타과생 기준으로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으나 기말고사가 수업에 비해 다소 어렵게 느껴졌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Lecture
1114 General German Language Course A1.1	주 2회 수업으로 저희 분반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주셨습시다만 다른 분반은 독일어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독일어 알파벳부터 시작해 차차 표현 등으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독일어 기초 강의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다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별도의 수업료(20유로) 지불이 필요합니다.	
HS Special Topics in Comparative European Societies: Popular Support and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인텐시브 세미나로, 유럽 복지 국가의 정치에 관해 미시, 거시적 관점으로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매주 논문 2개 이상 읽는 과제, 논문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 및 관련 토론, 기말레포트가 있었습니다.	Intensive Seminar
ÜK Current Research Topics: Comparing European Welfare States: Analyzing Cross-	유럽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수업으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한 간단한 통계 분석 등이 있었습니다. 매주 논문 읽기 과제 및 데이터 분석 에세이가 과제로 있었으며, 교환학생 대상으로 데이터 레포트 작성을 통한 추가 학점(3ECTS)이 있었습니다.	Intensive Seminar

national Data		

8. 해당대학의 학습 분위기 및 관습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 딱히 없습니다.

C. 생활환경에 대해서

1. 현지의 숙소는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 파견교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 지원하여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선택범위와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 교환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울멘벡의 기숙사와 하펜스트라세의 기숙사인데, 이는 학생이 선택할 수 없으며 방은 자동 배정됩니다. 저는 울멘벡에 배정 받아 월세는 380유로, 별도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의 옵션에 따라 10유로 안팎으로 차이가 있는 듯 했습니다. 26-1학기 홈페이지 안내 기준으로 최저 월세는 380유로였습니다. 제 방은 6인 플랫으로 공용 부엌과 샤워실, 그리고 2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방에는 침대, 책상, 옷장(+ 옷걸이), 거울과 세면대가 있습니다.

3.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식사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울멘벡은 가까이에 마트가 많아 대부분 직접 요리해 먹었습니다. 다만 플랫마다

주방 시설의 차이가 커서 정작 초기에 요리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 플랫은 초기에 화구 4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그마저도 화력이 너무 약해 수리를 받기 전까지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플랫에는 앞사람이 두고 간 전기 포트, 전자레인지 혹은 오븐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의 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전날 미리 식사를 계획해 장을 봐두셔야 합니다.

4. 현지에 머무르는 동안 건강상태는 양호했습니까? 해당대학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가입조건은 무엇입니까?

- 독일은 공/사보험 가입을 의무시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 시 독일 보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엑스파트리오나 코라클이라는 대행 업체를 통해 공보험에 가입합니다. 사보험이 더 저렴하지만, 공보험을 거쳐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며 보장범위가 작다고 들었습니다. 파견교측에서도 보험 관련 OT를 진행해주시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블로그 글도 많으니 잘 찾아서 가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엑스파트리오를 통해 슈페어콘토 개설 및 TK 공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감기를 계절마다 하는 편이라 미리 처방약을 넉넉하게 챙겨갔습니다. 평소 자주 드시는 처방약이 있다면 반드시 충분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독일 약국은 대부분 영어가 가능한 직원분들이 계셔서 번역기를 통해 약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은 미리 예약이 필수적이라 아플 때 바로 진료 받기 어렵습니다.

5.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이 있었습니까? (예: 음식, 옷, 개인 위생품, 기타)

- 우리나라에서 준비해 가야할 물품 또는 두고 가도 되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체형에 맞는 바지를 찾기 어려우므로 옷 중에는 바지를 넉넉하게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샤워기 및 세면대 수도꼭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신경 쓰시는 분은 필터와 리필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수전이 방마다 달라 한국 필터 사용이 가능한 방도 있었지만 불가능한 방도 있는 점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돗자리, 수영복, 배수 욕실화, 휴대용 선풍기, 실리콘 접이식 그릇, 도

난 방지 스트랩, 라면 스프 등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6. 컴퓨터나 도서관, 기타 해당대학의 시설물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 도서관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며 프린트도 저렴한 가격에 가능합니다. 대학 건물이 지정된 캠퍼스 구역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 만하임대 학생은 만하임 대학교 건물로 쓰고 있는 만하임 궁전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등교하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해당대학의 학생들과의 교제는 원활하였습니까?

- ESN이라는 교환학생 연합동아리와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해당 동아리에서 교환학생 및 재학생 대상으로 버디 매칭을 포함한 행사를 자주 열어줍니다. 다만 경우에는 버디의 개인사정으로 큰 교류는 없었습니다. ESN의 행사 혹은 수업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덴벡의 경우 공용주방이 있어 플랫폼 메이트와 친해질 기회도 많습니다.

D. 지출경비에 대해서

1. 학교에서 보낸 시간과 여행 또는 관광하는데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실제 학기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인텐시브 세미나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여유를 가졌습니다. 기숙사 계약도 6월 30일 만료였으나 공식 학기 및 비자 기간이 7월말까지여서 마지막 한 달간 여행을 다녔습니다.

2. 해당대학에 머무는 동안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지출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숙박 및 식비 : 약 1500만원

여행비 제외, 월세 및 식비 등의 생활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3. 해당대학에서 지출한 금액과 항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해당대학의 부대 서비스, 각종 시설물, 컴퓨터 및 도서관 이용 관련 등)

- Semester Fee: 100유로

교환학생 대상 독일어 수업료: 20유로

세탁비: 세탁기 2.6유로, 건조기 2유로

건조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세탁기는 보통 주 1-2회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4. 현지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 보통 인터넷 은행인 Wise 혹은 N26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 앱을 설치하여 회원 가입하면 계좌 개설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Wise 계좌를 한국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한국 전화번호 이용 및 비대면 본인인증이 가능해서 편리했습니다.

E. 후배를 위하여

1. 다음 참가자들이 해당대학의 교환학생 준비를 하는데 추천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여행책자, 소셜, 신문, 영화 등)

- 듀오링고로 학습한 독일어가 은근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 여행책을 한 권 가져가서 독일 여행시에 알차게 썼습니다. 독일은 기파전자 수기 및 블로그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조언, 비판, 제안을 써 주십시오.

-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느낀 점(스스로 만족 또는 불만족)이 있다면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은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여러분이 작성하는 본 설문지는 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대학 : 만하임대학교 파견기간 : 1학기 성명 : 박*원

※ 작성 시 유의사항

◦ 설문지 제출확인을 위해 성명 표기를 반드시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을 제외한 이름 중 한 글자를 *처리 해주기 바랍니다.

◦ 괄호 안에 √표시를 하거나 의견을 서술해 주세요.

◦ 작성 후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커뮤니티-해외체험수기에 직접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1. 다음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외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됨 ()	4점 도움됨 (√)	3점 보통 ()	2점 도움되지 않음 ()	1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	----------------	---------------------	------------------------

1-2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해외건문 확장 및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됨 (√)	4점 도움됨 ()	3점 보통 ()	2점 도움되지 않음 ()	1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	----------------	---------------------	------------------------

1-3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친구나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5점 적극 추천 (√)	4점 추천 ()	3점 보통 ()	2점 반대 ()	1점 절대 반대 ()
-------------------	----------------	----------------	----------------	-------------------

2. 다음은 현지 교육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파견기관은 어디입니까? (독일 만하임대학교)

2-2 현지 수업의 방식과 질은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매우 만족 (√)	4점 만족 ()	3점 보통 ()	2점 불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	----------------	----------------	-----------------	--------------------

2-3 현지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내용이 현지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 (√)	4점 도움 ()	3점 보통 ()	2점 도움안됨 ()	1점 전혀 도움안됨 ()
-------------------	----------------	----------------	------------------	---------------------

2-4 현지 수업방식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강의식 (√)	토론 및 발표 (√)	세미나 (√)	팀프로젝트 ()	기타방식 ()
--------------	------------------	--------------	----------------	---------------

2-5 현지 파견기관의 시설은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매우 만족 (√)	4점 만족 ()	3점 보통 ()	2점 불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	----------------	----------------	-----------------	--------------------

3. 다음은 현지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현지 숙소를 찾게된 경로를 적어주세요

파견교에서 메일로 기숙사 안내 받았습니다.

3-2 숙소의 형태, 하숙 및 룸메이트 숫자, 비용을 적어주세요

- 숙소의 형태 : 기숙사(O), 아파트 (), 스튜디오 (), 하숙 ()
- 룸메이트 : 본인 제외 5명, 총 6명
- 렌트비 (1개월 기준) : 380유로

3-3 주거 환경이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 불만 ()

3-4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만, 건물이 오래되어 플랫 내에 고장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리를 요청하면 처리해주셨지만 정착 초기에는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또 만하임 내 행사 및 기타 이유로 인해 학교행 트램 혹은 버스 경로가 변경되는 일이 종종 있어 적응에 시간이 다소 필요했습니다.

3-5 현지 생활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기숙사 내 조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컸고, 마트 내 식재료의 독일어 설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정착 초기 장보기와 요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업과 관련해서는 사회과학대 강의 특성상 토론이 잦았는데, 영어회화가 능숙하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4. 다음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소요된 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4-1 프로그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적어주세요.

항공료	학비	현지생활비	기타
180만원	20만원	1300만원 (공보험 등 포함)	

4-2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한 비용 중 만족스럽지 못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항공료 ()	프로그램비 ()	숙박비 ()	식비 ()	기타 (√)
---------	-----------	---------	--------	--------

4-3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환학생 경험 자체를 목적으로 지원하여 여행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무작정 떠나보는 경험도 즐거웠습니다만, 부활절 등의 성수기 기간 혹은 인기 지역의 여행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5. 다음은 준비과정 및 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5-1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학교 공지 (√)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브로셔 ()	교수님 권유 ()	친구 권유 ()	기타 ()
-----------	-----------------------	------------	-----------	--------

5-2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무경력 쌓기 ()	어학능력 향상 (√)	전문 넓히기 (√)	해외여행 (√)	기타 ()
-------------	-------------	------------	----------	--------

5-3 오리엔테이션은 몇 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기타 ()
--------	--------	--------	-----------	--------

5-4 이번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용 (√)	어학능력 ()	학교생활 ()	학교규정 ()	기타 ()
--------	----------	----------	----------	--------

6. 금년도 참가자로서 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바라는 점들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